

ASSOCIATION NEWS

제16회 정기 총회 개최

협회는 지난 3월 26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호텔 3층 다이몬드볼룸에서 '제 16회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신훈 회장을 비롯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부회장 등 이종수 수석 부회장(현대건설 사장), 윤오수 상근 부회장 등 회원사 임직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본문 기사 참조>

주요 안건으로 2007년 결산안과 지난해보다 0.7% 증가한 총 47억 5774만 원 규모의 2008년 예산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현 회원이사 중 오는 6월 20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4명에 대해 현실적으로 임시 총회 소집에 따른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이사 선출을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2008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협회는 지난 2월 27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호텔 유니버셜룸에서 신훈 회장을 비롯한 윤오수 상근부회장 등 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7년 결산안과 지난해보다 0.7% 증가한 총 47억 5774만 원 규모의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협회는 지방 부동산 경기 회생을 위한 특단 대책 등 '주택 시장 정상적 작동을 위한 108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 투기 지역 해제 ▲지방의 전매 제한 완화 ▲기반 시설 부담금 제도 폐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양도세 완화 ▲정비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용 개선 등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규제 개혁 장관 회의에 건의해 하자 보수 보증 예치금 산정 기준을 직접 공사비를 기준으로 업체별 하자 실적 등에 따라 예치금 적용 요율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난 임원 간담회 건의 사항 중 ▲한시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사이버 견본 주택 구축 의무화 폐지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는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제16회 정기 총회를 3월 26일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개최하고, 2007년 시공 능력 평가 31위인 엠코가 협회에 3월 1일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운영홍보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 3월 11일 서울 논현동 협회 회의실에서 김경호(현대건설 상무) 부위원장을 비롯한 운영홍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홍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된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투기과열지구 내 오피스텔 전매 제한 및 거주자 우선 분양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의 사업 계획 변경 허용 ▲재개발 사업 임대 주택 공공 인수 명문화 등을 보고했고, 주요 추진 사항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분형 건축비 인상 ▲입주자 모집 공고문 간소화 및 사이버 견본 주택 구축 의무화 폐지 ▲지방 공공 택지 공공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개선 ▲주택 성능 등급 가산 비용 인정 범위 적정성 및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 비용의 현실화와 공공의 과도한 정비 사업 참여로 민간 업역이 침해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하고 회원사와 협조해 적극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